

AI 시대의 6G를 이끌 글로벌 협력의 장, ‘모바일 코리아 2025’ 개최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16개국 60개 기관·기업 300명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모바일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코리아 2025」에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6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쉘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참여하여 6G 비전 및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6G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10월 27일(월)에 개최되는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은 6G 포럼 대표의장인 LGU+ 이상엽 CTO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의 축사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최형두 간사, 황정아 위원의 영상축사에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 개발 및 구축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후 글로벌 6G 리더십을 대표하는 한국의 6G 포럼과 EU의 6G-IA 간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한층 강화되어 한국이 6G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코리아 2025」는 6G 기술·표준 관련 글로벌 동향 및 6G 정책 추진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논의하는 ‘6G Global’(10.27.~29.),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5G Vertical Summit’(10.29.),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Regional Workshop(10.29.)’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① 6G 글로벌 : 10.27.(월)~10.29.(수)

‘6G 글로벌’은 10월 27일(월)~29일(수) 3일간 진행되며,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과 장비제조사, 통신사업자, 학계 및 연구계가 6G 동향을 논의하는 5개의 기술 세션(24개 강연) 및 부대행사(모바일코리아 데모 페스트 세션)로 구성된다.

먼저 1일차인 10월 27일(월)에는 GSMA, 삼성전자, EU 6G-IA의 기초연설로 막을 연다. 이후 「모바일코리아 2025」 개막식이 개최되며, 개막식 이후에는 중국 IMT-2030, 일본 XGMF, EU 6G-IA, 인도 B6GA 등 주요 글로벌 6G 포럼이 국제협력 방안과 공동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6G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과 기술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신 산업의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2일차인 10월 28일(화)에는 LG전자, AI-RAN Alliance의 기초연설 이후 6G에 대한 통신사업자 관점을 주제로 한국의 LGU+, SKT, KT, 일본 KDDI와 NGMN이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계·연구기관·학계의 6G에 대한 관점을 주제로 다양한 단체들이 발표를 이어간다.

3일차인 10월 29일(수)에 진행되는 특별세션인 모바일코리아 데모 페스트 세션에서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로데슈마르츠, 비아비솔루션즈 등 글로벌 시험·계측 장비들의 발표와 이노와이어리스, 쏘리드, 아이디큐 등 우리나라 대표 중소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② 5G 버티컬 서밋 : 10.29(수)

10월 29일(수) 진행되는 5G 버티컬 서밋에서는 “5G+ X : Driving the Future to 6G”를 슬로건으로 5G의 고도화와 AI 융합을 통해 6G로 나아가는 기술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네이버랩스와 5GAA가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싱가포르 공과디자인 대학교(SUTD), KT에서 AI-RAN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AI-RAN으로의 네트워크 진화를 다루는 삼성전자, SKT, 서울대학교, 넷큐브가 발표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세션이 진행되며, 이후 LG AI 연구원과 함께 파운데이션 AI와 B5G/6G 진화 방향에 대한 1:1좌담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퍼지컬 AI를 주제로 로보티스, LGU+,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③ Regional Workshop : 10.29(수)

10월 29일(수)에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리저널 워크숍’은 ‘Regional Partnerships Driving AI-Empowered Networks’를 주제로, AI와 네트워크 기술 융합을 통한 5G-Advanced 및 6G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TTA, 삼성리서치, SKT 등이 참여해 AI 기반 5G-Advanced 기술 발전과 자율형 네트워크, RAN(무선접속망) 효율화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진화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Richárd Szabados 헝가리 국가경제부 차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튀르키예 정보통신청(BTK),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인도 바랏6G얼라이언스, 싱가포르 공과디자인대학교(SUTD), 그리고 필리핀 Globe Telecom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5G/5G-Advanced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차세대 통신 생태계의 비전과 공동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④ 위성통신포럼 세션 : 10.30.(목)

10월 30일(목)에 진행되는 위성통신포럼 세션에서는 비지상 통신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6G 위성 정책 및 전략에 대해 한국(과기정통부), 유럽(유럽우주국(ESA)), 대만(산업기술연구원), 일본(JSAT)의 4개 주요 국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6G 위성 표준화에 대해 KD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AS의 발표가 진행되며, 이어지는 6G 위성 기술 세션에서는 KT SAT, 아주대, Skylo가 연사로 참여해 발표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X 대전환의 중심에 있는 6G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라며 “6G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업과 긴밀한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AI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팀 장	이정기	(044-202-6420)
	네트워크정책과 혁신네트워크팀	담당자	사무관	허 관	(044-202-642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